

연구 지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논의

1. 연구처/산학연구처의 각 전문위원들 구성의 문제:

연구처(산학연구처)에는 여러 규정들과 지침들을 변경하거나 의논을 하는 연구위원들이 존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위원들은 적어도 각 단대별 연구성적이 우수하고 외부과제 유치와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편찬 및 전시 등의 우수한 성적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연구를 위한 규정과 지침들이 잘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특허심의, 연구규정, 연구처와 산학관련 전문위원들 구성을 포함합니다.)

2. 외부 과제를 선정후에 연구원을 연구조교 1년 사용시 논문을 편찬 하여야 하는 교수의 이중적 노고의 문제

외부 과제를 유치를 하게되면 간접비라는 비용을 학교에 과제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보통 15~20% 정도나 30%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로 5천만원의 경우 20% 간접비는 1000만원 입니다. 간접비의 일부는 과제를 수주한 교수님께 인센티브로 돌아가고 나머지 부분은 대학원 연구조교비용 교수님들의 외부학회활동 지원비용과 연구처 비용등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생 연구조교를 과제를 수주한 교수님이 학교에 신청을 할 경우, 연구조교 지침 12조 2항에 연구조교를 1년을 사용하면 연구조교 규정에 의해서 사사가 들어간 논문이나 연구조교가 들어가 논문 1편을 (등재후보지) 이상에 실어야 합니다.

보통 연구비를 수주하여 연구의 결과물인 논문을 게재하면 연구비를 수주한 한국연구진흥재단등의 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구비를 수주해서 간접비를 납부하고 그 간접비의 일부로 연구조교 등록금으로 사용한다면 과제를 수주한 교수님이 과제를 어렵게 수주하여 간접비를 납부하여, 그 간접비가 연구조교의 등록금에 사용이 되었다면 연구조교 논문을 편찬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비를 수주하지 않고 연구조교 혜택을 받는 교수님들과 외부연구비를 수주한 교수님들과 적용이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안) 5조에 예체능실기의 경우 학술논문 제출 대신 국내.외 개인전 1회 또는 활용인원 1인당 3,000만원 이상 외부과제 유치나 유치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인문 사회 전공의 경우 1인당 1000만원 이상 외부과제 유치나 유치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타전공의 경우 1인당 4,000만원 이상 외부과제 유치나 유치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공에 다른 과제 규모는 추후 논의)

3. 교수의 연구력 자질 문제에 따른 퇴임시기 조절

교수의 경우 보통 교육 40%, 연구 30%, 봉사 30% 등의 조절 가능한 분야별 %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연구의 %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가 줄어들면 교육의%와 봉사의 %가 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 나이가 드시면서 모든 부분의 %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의 %가 줄어들어서

(예1)로 교육 40% 연구 0% 봉사 10% 등으로 (총 40%) 현격하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다른 예로

(예2) 교육 40% 연구 40% 봉사 20%로 연구능력이 연세가 드시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2의 경우는 최근 급격하게 변하는 대학교의 현실 속에서도 교육과 연구가 탁월한 교수님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예1의 경우는 좀 더 다른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명예교수 자질의 문제

퇴임을 하시면서 명예교수로서 높은 임금으로 강의를 계속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의의 질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의에 교수님의 출석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사로 대처를 하는 경우가 더 낫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나 교육의 질이 우수 하셨던 분들의 강의는 문제가 없겠지요, 퇴임전에 강의 평가나 연구나 교육의 질등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명예교수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구 봉사등이 탁월한 분들만 명예교수직을 주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